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문신, 권오상 2인전
《깎아 들어가고, 붙여나가는(Carving in, Modeling out)》



전시제목:	깎아 들어가고, 붙여나가는(Carving in, Modeling out)
참여작가:	문신(1922-1995), 권오상(b. 1974)
전시기간:	2024년 5월 1일(수) – 6월 22일(토)
전시장소: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서울 종로구 율곡로 85) 지하 1층, 1층, 3층
전시작품:	조각 및 드로잉(총 49점)

[작품 이미지 및 전시 전경]

웹하드: <http://www.webhard.co.kr/> (ID: arariogallery / PW: arario)

내리기전용 → 2. ARARIO GALLERY_SEOUL → 20240501-20240622 문신, 권오상 MOON Shin, GWON Osang, Carving in, Modeling out

[문의]

박미란 팀장 M. 010 6768 8812 / E. miran.park@arariogallery.com

황보영 담당 M. 010 7297 3597 / E. boyoung.hwang@arariogallery.com

1. 전시개요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2024년 5월 1일(수)부터 6월 22일(토)까지 조각가 **문신**(1922-1995)과 **권오상**(b. 1974)의 2인전 《**깎아 들어가고, 붙여나가는(Carving in, Modeling out)**》을 개최한다. 문신은 60년대 이후 한국 조각사에서 독창적이며 선구적인 매체적, 조형적 시도를 한 1세대 조각가로서, 권오상은 90년대 이후 사진을 이용한 가벼운 조각 등 새롭고 실험적인 작업을 선보인 동시대 조각가로서 인정 받아왔다. 본 전시에서는 문신의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조각과 드로잉, 권오상의 근작 조각들 중 다양한 재료적, 형태적 실험이 두드러진 작품들을 선별해 선보임으로써 조각의 물질성과 공간성에 대한 두 작가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시주제

※ 전시전경 고화질 이미지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작품 이미지 사용 시 다음의 저작권 표기 요청 드립니다. ©권오상/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작가 및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문신, <무제3>(1995)
스테인리스 스틸
170 x 43 x 144(h) cm

이번 전시는 한국 조각사에서 독창적이며 선구적 시도로 인정받아온 조각가 문신의 1970년 이후부터 90년대까지의 다양한 시도들과 1990년대 후반 새로운 매체 실험으로 인정 받아온 후배 조각가 권오상의 조각적 실험들을 연결시켜보려는 시도이다.



권오상, <권오상 조각 스튜디오를 비추는 문신>(202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혼합매체
84 x 60 x 200(h) cm

전시는 시대별 나열을 통해 두 작가의 작업을 분리해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주제별로 나뉜 3개의 전시 공간에서 층별로 자연스럽게 혼합하는 방식을 취했고, 이 방식을 통해 시대를 넘나들며 교류하는 두 조각가의 열정적인 실험 의지와 도전 정신들을 보여주는 데 주력한다. 나아가 권오상은 문신의 작품을 재해석하고 오마주한 작품을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해 소개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두 조각가의 작업을 나열하는 데 멈추지 않고, 이들 작업 간 교류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들을 연결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형태 구축을 통한 조형 연구와 다양한 재료로의 실험이라는 공통 분모가 특별히 두드러지는 두 명의 조각가이기 때문이다.

화가에서 조각가로 전환했던 문신은 특정 형태나 이미지 표현보다 최소한의 조형 단위를 배치하고 구축하는 조형 방식에 천착했다. 그 결과물인 추상 조각들은 생명체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유기체적 형태를 갖거나 문신만의 내재적 리듬을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곡선미가 두드러지는 독특한 형태로 귀결되었다. 특히 대칭과 비대칭이 미묘하게 공존하며 만드는 긴장감이나 정면성을 강조하는 형태, 그리고 완벽한 표면 처리는 문신 조각을 감상하는 묘미 중 하나다. 형태 구축에 대한 독특성뿐 아니라 보통의 캐스팅 방식보다는 철사나 금속 그물 등으로 기본 골조를 만들고 그 위에 더해진 석고를 갈고 조각하는 방식으로 형태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나, 덩어리로 된 통나무보다 제재된 납작한 목재로 형태를 다듬어 가는 등 끊임없이 선구적으로 다양한 재료와 제작 방식을 시도했다. 조각과 함께 중요하게 살필 문신의 드로잉은 대부분 조형의 가장 기본 형태인



문신, <무제>(1992)
스테인리스 스틸
84 x 33 x 210(h) cm



권오상, <Reclining
Figure>(2024)
브론즈
160 x 46.8 x 85.2(h) cm



문신, <화(和)2>(1988)
브론즈
100 x 30 x 54(h) cm
©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사진: 한국문화재 사진
연구소 한정엽



권오상, <문신의 우주를
향하여>(202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혼합매체
60.4 x 54.6 x 100(h) cm

원과 선이 연결되면서 확장되는 과정에서의 유기적 모미들이 감각을 자극한다. 본 전시에서는 이러한 문신의 70년대 작품들과 함께 80년 후반부터 90년대를 아우르는 조각들을 주로 소개한다.

또 한 명의 작가 권오상은 90년대 후반 가벼운 조각을 표방하며 등장해 아이소핑크를 조각해 형태를 만든 뒤 사진을 부착하고 코팅을 더해 최종적 표면을 만들어내는 시리즈, 일명 사진 조각으로도 불리는 '데오도란트 타입' 시리즈를 처음으로 시도했다. 권오상의 사진 조각은 조각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과 그에 대한 명쾌한 시각적 대안의 제시였다는 점에서 첫 등장과 함께 관심을 받았고, 이후 지속해서 다양한 조형적, 기법적 연구를 선보여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 추상 사진 조각들을 소개할 뿐 아니라, 기존 사진 조각을 확장해서 조각의 경계선에서 있던 기존 사진 조각을 정통 조각 재료의 대표격인 브론즈로 재해석한 작품을 와상과 두상의 형태로는 처음으로 선보인다. 더불어 또 하나의 확장 버전으로 기존의 입체적 사진 조각을 한 면이 강조된 부조로 표현한 작품이 다수 소개된다. 작가가 공기의 흐름이라고도 표현하는 조각의 구멍이 두드러지는 이 시리즈에서는 조각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면서 독특하고 다양한 공간감을 이끌어내고, 조각 안에서 또 하나의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조각에서의 구멍에 대한 작가의 사유가 담겨있다.

전시는 총 3개 층에서 진행된다. 지하 1층에서는 문신의 70년대 드로잉과 함께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제작된 흑단, 브론즈, 스테인리스 조각들과 함께 권오상의 신작 추상 사진 조각들,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브론즈 와상과 두상 조각들이 서로 뒤섞여 다양한 재료와 기법 연구에 몰두한 두 작가의 시도를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1층에서는 문신 조각의 특징인 정면성을 잘 드러내며, 주변을 비추고 조각을 둘러싼 공간을 조각 내부로 끌어와서 품어내는 특징을 갖는 문신의 스테인리스 조각이 2점 설치된다. 여기에 이 전시에서 눈여겨볼 권오상의 조각 2점이 함께 설치되는 데, 그 중 하나는 문신의 조각 한 점을 확대 제작해 주변을 비추는 문신의 스테인리스 조각의 미학을 사진 조각으로 해석해 낸 작품이다. 더불어 권오상 작가의 조각에서의 구멍에 대한 사유를 담고 있는 5미터 대형 부조 사진 조각이 소개된다.

마지막으로 3층에서는 문신이 60년대에 조각과 건축의 관계를 사유하며 고안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각'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소개된다. 현창원문신시립미술관이 가장 적절한 예시이기도 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각은 실제로 문신 조각에서는 많이 구현되지 않았고 드로잉으로 존재한다. 3층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문신의 초기 70년대 드로잉과 3점의 80-90년 조각이 설치된다. 권오상 또한 최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조각적인 가구 시리즈를 선보여왔고, 이 전시에서는 소파와 조명을 선보인다. 본 층에서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확장된 공간적 맥락에서의 해석을 요구하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각에 대한 문신의 사유가 권오상에 의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조각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3. 전시전경

※ 전시전경 고화질 이미지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전시전경 이미지 사용 시 다음의 저작권 표기 요청 드립니다: 작가 및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지하 1층 전시전경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지하 1층 전시전경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1층 전시전경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1층 전시전경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3층 전시전경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3층 전시전경

4. 작가소개

문신은 1922년 일본 큐슈에서 태어나 마산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1945년 도쿄예술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귀국 후에는 국내에서 10여 차례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1961년 새로운 예술세계를 경험하고자 프랑스로 간 그는 1970년 프랑스 국제조각 심포지엄(Symposium International de la Sculpture)에 출품한 <태양의 인간>을 통해 조각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프랑스 파리의 동시대조각센터(Centre de Sculptures Contemporaines), 그랑팔레(Grand Palais), 파리시립 근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 de Paris), 파리 조각센터(Paris Sculpture Center), 파리 아트센터(Paris Art Center) 등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1980년, 고향 마산에 영구 귀국하였고 프랑스 최고위의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과 대한민국 문화부문 세종문화상을 수상했다. 타계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서울, 한국, 2022), 이응노미술관(대전, 한국, 2011), 어울림미술관(고양, 한국, 2008) 등 주요 미술기관이 문신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전시를 개최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파리시립 근대미술관 등의 기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권오상은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0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부 졸업 후 2004년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롯데 에비뉴엘 아트홀(서울, 한국, 2023), 일민미술관(서울, 한국, 2022), 수원시립미술관(수원, 한국, 2022), 아라리오갤러리(서울, 한국, 상하이, 중국, 2016) 등에서 개인전 및 협업전을 개최하였으며 에르메스(시드니, 호주, 2016), 워터폴갤러리(뉴욕, 미국, 2016), 오키나와 현대미술센터(오키나와, 일본, 2015), 조이스파리(파리, 프랑스, 2014), 하다컨템포러리(런던, 영국, 2013), 맨체스터 아트갤러리(맨체스터, 영국, 2008) 등 세계 등지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경남도립미술관(창원, 한국, 2023), V&A 미술관(런던, 영국, 2023), 더샵하우스(홍콩, 중국, 2022), 서울대학교미술관(서울, 한국, 2021), 대림미술관(서울, 한국, 2020), 포항시립미술관(포항, 한국, 2020), 롯데뮤지엄(서울, 한국, 2019), 국립현대미술관(서울, 한국, 2015), 싱가포르 현대미술관(싱가포르, 2014), 사치갤러리(런던, 영국, 2010), 부르거 컬렉션(베를린, 독일, 2009), 볼로냐 현대미술관(볼로냐, 이탈리아, 2004), FOAM(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003) 등의 기관이 연 단체전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권오상은 이 외에도 더욱 대중 가까이에서 현대미술을 선보이고자 라이엇 게임즈, 재규어, BMW, 우영미, 에르메스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 작업을 진행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리움미술관 등의 기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5. 전시서문

공간 속으로, 더욱 더

안소연(미술비평가)

1. (둥근) 표면

좌우 대칭 구조를 한껏 과시하는 조각가 문신(1922-1995)의 스테인리스 '무제' 조각들은 주변 공간을 그 표면에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의 광택은 볼륨을 감싼 조각의 표면을 거울처럼 반짝이게 해, 그 표면적을 기이하게 늘어뜨려 놓는다. 이 역설적인 구조는, 내부가 팍 찬 양감을 중력으로부터 띄워 가느다란 지지대 위에서 제 무게감을 운동감으로 전환하는 조각적 환영을 보여준다. 수직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이 금속 조각은 유기체적 형상을 연상시키며 그 내부의 구조적 질서를 확신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압도적인 반사 효과로 인해 그것과 마주한 시선은 그 표면에 부딪혀 더 이상 내부로 향하지 못한 채 방향을 (뒤로) 되돌릴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멀리 거리를 두고 저 형태의 윤곽을 배경과 분리시켜 대칭의 균형 잡힌 덩어리로 지각했던 경험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윤곽에 대한 확신 보다는 표면의 광택에 사로잡혀 조각을 에워싼 공간이 표면을 굴절시키는 기이한 분절을 목격하게 된다. 결국 보이지 않는, (조각과 나 사이에서) 어쩌면 볼 필요도 없는 신체의 배후 공간, 그 네거티브의 (비가시적) 영역을 자꾸 결눈질 하게 하는 것이다.

표면의 둥근 곡선과 광택이 이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공간 속 몸들의) 시점을 반영함으로써, 문신 조각의 엄격한 대칭성은 물리적 공간을 초월한 조각적 형태의 윤곽을 과장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제 형태와 (미치) 분리될 수 없는 현실의 잔해들로 표면의 굴곡을 일렁이게 한다. 둥글고 매끈한 조각의 표면 위 광택은, 마치 요술을 부리듯 그 총명한 양감을 뚫고 들어가기 원하는 시선(혹은 양감을 뚫고 나오려는 날카로운 윤곽선)을 좌절시키면서, 대신 이 입체적인 형태 위에 꿈틀대는 파동을 부여한다. 이러한 역설적 긴장감은, 그것이 나무라 해도 마찬가지다.

모델을 제작하고 낫쇠를 녹여 무라즈(형틀) 안에 부은 후, 다시 빛나는 청동으로 윤을 내야 한다. 말 그대로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스틸을 느낄 수 있는 작업임을 알 수 있다. (...) 목재를 끌로 다듬다가 햇빛에 비춰보면 나무의 색이 속에서 우러나오는데, 이것이 마치 거친 마띠에르가 두드러지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연상시킬 때가 있다.

조각가 문신을 떠올려보면, 단단한 금속과 나무를 다루며 특유의 대칭적인 구조 속에서 조각의 양감을 탐구한 그의 조형 세계가 단번에 그려진다. 둥글고 매끈한 표면에서 느껴지는 촉각적 환영은 이내 차가운 온도와 부드러운 질감을 동시에 상상하게 하며, 그의 조각 안에 내재하는 팽창하는 힘을 외부로 발산시킨다. 그가 쓴 「브론즈와 나무」라는 짧은 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조각가 문신의 관심은 조각의 대칭적 구조를 감싼 “표면”에 어떤 흔적들로 남겨졌다. 그것이 청동이든, 흑단이든, 문신은 “빛”에 반응하는 “재료의 물성”과 그것이 자아내는 “표면의 상태”에 매료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게 역력하다. 조각 내부의 대칭축 어딘가로부터 팽창해 나오는 제 강렬한 윤곽선의 효과에 스스로 맞서, 문신 조각의 표면은 어떻게 보면 (두께를 까맣게 잊은) 한낮의 깊은 바다 수면처럼 반짝이는 일렁임에 우리의 시선을 옮겨다 놓곤 한다.

2. 대면

문신과 권오상의 2인전 《꺾아 들어가고, 붙여나가는》이 시작되는 전시장 1층 백색 공간에는, 문신의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 2점과 권오상의 사진 조각 1점이 삼자대면 하듯 높이를 맞추어 큰 동선을 그리며 마주해 있다. 한쪽 벽면 상단에는 폭 5미터 정도 크기로 만든 권오상의 부조가 비정형의 둥근 단위체를 이어 붙인 듯 조형적인 특징을 한껏 강조하고 있다. 바닥에 세운 <권오상 조각 스튜디오를 비추는 문신>(2024)은 “200 x 84 x 60 cm”의 크기로, 일군의 문신 조각이 보유하는 2미터 내외의 높이를 따르면서 일정한 시선을 끌고루 배분하며 공간을 점유한다. 공간 깊숙한 곳에서부터 양쪽으로 나란하게 서 있는 권오상의 <권오상 조각 스튜디오를 비추는 문신>과 문신의 <무제>, <무제3>은 단단한 양감이 구축해낸 균형 잡힌 윤곽선을 흰색 공간과 분리시켜 선명하게 제시한다.

조각 표면의 광택은 “빛”에 의해 극대화 되는 입체적 양감을 비롯해, 그것의 운동성을 시각적으로 실체화 할 수 있는 기본 요소로 꼽힌다. 이때 조각가 문신은 “청동으로 윤을 내는” 단계를 넘어,

스테인리스 스틸의 과도한 광택을 통해 조각의 양귀에서 벗어난 (두께 없는) 표면에 시선을 집중시킨다. 이는 20세기 중반에 산업적 재료를 사용해 조립하고 구축하는 조각적 실험을 모색한 조각가들과 삼차원의 표면에 사물의 효과를 적용해 회화적 평면을 환기시켰던 일군의 현대 조각가들이 공유한 "새로운 조각"의 문제의식과 통한다. 이 대목에서, 조각가 권오상은 초기의 "가벼운 조각"에서 출발해 그가 줄곧 참조해 왔던 (미술사의) 조각적 형태를 자신의 (가벼운) 사진 조각에 있어서 일종의 (상징적) 지지체로 전환해 온 다수의 사례들에 대해 줄줄이 떠올리게 할 태세다.

문신의 조각과 대면해 놓은 권오상의 조각은, 그가 조각의 표면에 관해 탐구해 온 최근까지의 긴 여정을 한번쯤 복기하게끔 한다. 지난 개인전 《AIR MASS: 바람이 다니는 길》(2023)이 결정적 계기였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벼움"을 좇던 그의 조각은 어느 순간부터 (더) "크고 무거운" 지지체 위에 "가볍게" 전사된/반사된 표면의 대비로 전환의 국면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문신의 <무제> 연작 옆에 나란히 선 <권오상 조각 스튜디오를 비추는 문신>은 일련의 정황들과 복합적으로 얽혀 그 표면에서 발생한 사건의 실체를 낱알이 살피게 한다.

권오상은 문신의 작은 청동 조각 하나를 구해 자신의 작업실에 가져다 놓았다. 엄격한 대칭성과 둥근 양감이 중첩된 그 조각과 매일 대면했을 그는, 그가 고전적인 기념비적 동상[두상, 흉상, 입상, 와상 등]에서부터 칼더나 무어의 조각을 지지체 삼아서 그 표면에 현실의 슬한 이미지들을 굴절시켜 조각적 상황을 모방하거나 갱신해 왔던 것처럼 어떤 가능성을 점쳤을 테다. 그는 곧바로 문신의 조각에서 표면의 광택에 의해 (내부를 포함한) "지지체"와 (외부를 반영한) "표면" 간의 기이한 분리/분절 현상에 대하여 스스로 어떤 목격자 내지는 그것과 연루된 내부자가 될 것을 마음 먹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쩌면 이미 작고한 조각가의 오래된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에서 수수께끼 같은 동질감을 가졌을 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그에게 조각의 지지체와 표면을 분리시키고 조각의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충돌시킬 "조각의 내막"에 대한 (옛) 경로를 제시했을 수도 있다.

<권오상 조각 스튜디오를 비추는 문신>은 권오상의 '데오도란트 타입(Deodorant Type)'의 사진 조각으로 제작되었으며, 그것은 문신의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의 적정 크기로 한껏 확대되었고, 매끈하고 둥근 표면 위에 거울처럼 반사되고 굴절되는 광택을 가지기 위한 작업이 착수됐다. 권오상은 자신의 작업실 공간을 기이하게 굴절시켜 표면에 반사시킨 문신의 조각을 상상하며 디지털 변환의 과정을 통해 사진 조각으로 옮기면서, 우선적으로는 그 표면의 왜곡과 변형을 (평면/사진이 입체/조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오도란트 타입 특유의 불완전한 해상도와 동일시해 두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지난 개인전 《AIR MASS: 바람이 다니는 길》에서 시도했던 "가벼운 조각"의 표면이 가상적인 이미지로 전환되는 설치 효과-거울을 이용한 조각의 받침대와 건축적 요소 연출-가 조각적 형태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매스패턴스(Masspatterns)' 시리즈를 공간 속에 독립시켜 놓기 위해 마련했던 거울 받침대와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인플레이터블(inflatable) '에어-매스' 시리즈의 미로 효과는, 매력적인 <권오상 조각 스튜디오를 비추는 문신>의 내부와 외부로 넘나들며 그 표면에 펼쳐진 현실 공간에 관한 방향 감각의 왜곡과 데오도란트 타입의 육중한 볼륨을 감싼 (비)사실적인 질감으로 우리의 눈과 몸, 지각과 인식의 간극에 자리하게 했다. 권오상은 그 매개의 위치에 문신의 조각을 펼쳐 놓은 셈이다.

3. 구멍, 공간 속으로

벽에 건 부조 <바람이 다니는 길>(2024)은, 현대의 추상 조각에서 조각적 공간을 확보해 주는 "구멍"에 관한 (재)조명을 강조한다. 이미 무어의 유기체적 조각이 조형적 특징으로 함의하는 텅 빈 구멍에 주목해 왔던 권오상은, 조각의 삼차원적 양감과 굴곡을 감싸고 있는 구멍을 연결해 옆으로 길게 누운 와상처럼

유기적인 추상적 실체에 관한 상상을 유도한다. 조각 내부의 구멍은 우리에게 삼차원의 “또 다른” 공간을 열어주면서, 실제 공간과의 연결과 분리를 동시에 가능케 한다. 말하자면, 조각을 감싼 실제 공간의 영역이자, 우리의 시선이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둘 다 증명한다.

권오상이 현대조각의 조형적 특징 중에서 이 구멍과 텅 빈 공백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마도 조각의 내부 질서에서 벗어나 조각의 외적 논리의 가능성을 시사하기에 적합해 보였을 수도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의 광택이 그 내적 논리에 근거한 표면과 윤곽에서 벗어나 외적 환경을 굴절시켜 표면을 기이하게 변형해 놓았던 것처럼, 내부 지지체로부터 분리된 표면의 삼차원적 경험, 즉 조각적 경험을 갱신하기 위한 동시대 조각가의 그럴듯한 시도처럼 보인다. 문신의 역사적인 조각 <태양의 인간>(1970)을 떠올려 보면, 13미터 크기의 나무 조각에서 수직축을 따라 상승하는 반구(半球)의 반복적이고 대칭적인 질서가 끝내 그것을 둥글게 감싼 허공 속으로 사라져 들어갈 것 같은 시지각적 체험을 동반하는 것도 권오상의 부조들과 통하는 점이 있다.

권오상의 <Wind Hole Relief>(2024) 부조 연작들과 함께 설치된 두 점의 <와상 소파 Reclining Sofa>(2024)는 무어의 와상을 참조한 조각의 지지체가 실제 공간에 그대로 놓여진 인상을 준다. 그 말은, 적어도 권오상의 사진 조각의 계보를 따를 때 표면이 채 덮여지지 않은 내부 지지체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 다른 맥락에서 비약적인 접근을 시도해 볼 때, 두 점의 <와상 소파> 연작은 브론즈로 만든 육중한 수퍼카 위에 주황색 도료를 칠한 <The Sculpture 2>(2005)와의 연결점을 시사하며, 나아가 최근 기존의 데오도란트 타입의 사진 조각을 브론즈로 캐스팅 해 그 표면에 사진 조각의 데이터를 회화적으로 옮겨 놓은 무모한 시도들과도 이어진다. 이와 같이 <와상 소파> 연작 또한 조각의 지지체와 표면의 분리 및 재배치의 논리 안에 들어와서, 권오상이 제시하는 “조각처럼 보이는” 상황을 기꺼이 감수한다.

조각가 문신은 조각을 공간 속으로 더욱 더 긴밀하게 가져다 놓길 원했다. 건축, 공예, 자연 등과 분리되지 않고 자신의 삶의 공간 속에 공존할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그는 조각이 가구처럼 보이고 환경처럼 보이고 건축처럼 보이기를 시도했다. 이는 그의 아주 초기 작업으로 자신의 그림을 감싼 액자들을 직접 나무로 깎아 회화적 공간에 관여하는 조각적 실체를 제시하려 했던, 그 순간에 대한 기억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다시 새로운 회화적 표면을 위해 과도하게 봉사하는 “더 크고 무거운” 조각적 지지체에 대한 권오상의 관심과도 통한다.

한편, 넓고 흰 조각의 받침대 위에 일제히 “정면을 향해” 펼쳐놓은 문신과 권오상의 크고 작은 조각들은 임의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조각의 양감을 전면적으로 과시한다. 대칭성이 강조된 문신의 조각은 빛을 투과시키거나 반사시키는 둥근 구멍과 둥근 표면을 시시각각 드러냄으로써, 조각의 삼차원적 환영-회화적이고 부조적인 총체성-을 충족시킨다. 이를 역설적으로 이용해, 권오상은 그러한 환영이 제거된 조각의 파편적 지지체 위에 이차원적이고 회화적인 표면을 덮어 또 다시 조각과 회화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비틀어 놓는다.

흰색 받침대 위에 줄지어 펼쳐 놓은 문신과 권오상의 조각들을 허리 숙여 하나씩 들여다 보면, 멀리서 시선을 사로잡았던 개별적인 조각의 견고한 윤곽선에서 (비로소) 벗어나 그 매끄러운 표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문신이 말했던 브론즈 표면의 광택과 빛에 일렁이며 나무 표면에서 스며나오는 색채의 질감들은 둥근 양감을 감싼 표면이 스스로 (가상의) 공간적 마술을 부리는 것 같다. 권오상은 문신의 좌우 대칭으로 비상하는 듯한 조각을 지지체 삼아 <문신의 우주를 향하여 Towards the Universe (after MOON Shin)>(2024)을 제작했다. <권오상 조각 스튜디오를 비추는 문신>처럼, 전시 공간 한쪽 모서리에서 문신의 ‘시메트리(symétrie)’ 조각의 표면은 (가상의) 우주를 반사시키고 있다. 이와 대구를 이루면서 권오상은 자신의 가벼운 조각을 브론즈 조각의 지지체가 갖는 무게 위에 복제시켜 놓고 “더 사진 같은” 회화적 표면의 가벼움으로 그것을 감싸는 반전을 끌어들었다. <Head(LP)>(2024)와

<Reclining Figure>(2024)는 브론즈 위에 (그것을 숨기듯 감쪽같이) 채색한 “가벼운 조각”의 또 다른 시도다.

문신과 권오상의 2인전은 각각의 조각가를 대등하게 엮은 전시라기 보다는, 권오상에 의한 문신과 문신에 의한 권오상의 참조적 비평을 동반한다. 문신 조각의 시메트리를 뛰어 넘는, 그 표면의 역설적인 확장과 분리에 관한 비평적 경로를 여는 일은 무엇보다 문신 조각의 현대성을 논의할 때 지각과 인식의 차원을 풍부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오상의 사진 조각이 비로소 자기 참조의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조각적 지지체와 표면의 분리에 관한 비평적 설득을 위해 미술사적 참조를 상상하고 지어내는 것 또한 동시대 작가의 과제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작고한 현대 조각가와 동시대 중견 조각가의 시차를 뛰어 넘는 만남은 “조각에 대한” 혹은 “조각에 의한” 사유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6. 작가약력

문신

1922-1995, 일본 큐슈 사가켄 다케오 현 출생

학력

1945 도쿄예술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 2023 문신 모노그래프; 비상,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 2022 MOONSHIN 1992-1995,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조각가의 혼,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문신: 우주를 향하여, 문신 탄생 100 주년기념 특별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서울, 한국
- 2019 문신 건축드로잉,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 2017 MOON SHIN 1960s,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 2016 기억의 조각,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 2015 문신예술 70년 회고전,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 2013 문신도화 - 백자에 흐르는 드로잉 세계,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 2012 삶과 예술의 여정, 문신 테마 드로잉전,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 2011 열정과 집념의 응결체 - 문신의 나무조각.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창원조각비엔날레, 돌섬해상유원지, 창원, 한국
- 2009 조각가 문신의 초기 회화,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 2008 화가, 문신(文信), 어울림미술관, 고양, 한국
리멤버 2007 문신 보도·영상·사진전,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 2007 문신 토탈아트 페스티벌 인 마산,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 2006 독일 월드컵 개최 기념 바덴바덴 문신초대전, 바덴바덴 레오폴드 광장, 바덴바덴, 독일
문신 소품조각전,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 문신불꽃조각전, 가나아트파크, 양주, 한국
- 2005 추상조각과 만나다, 문신 10 주기 기념전,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숙명여대 문신미술관, 가나아트센터 공동주관,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국
- 『거장 문신』10 주기 특별다큐멘터리 방영기념 기획전시, 경남 MBC 아트홀, 창원, 한국
- 2004 건축드로잉, 마산시립문신미술관, 개관전,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 문신, 드로잉과 조각,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개관전, 서울, 한국
- 2002-01 대한민국 국정 홍보처 해외 홍보관 상설전시, 주중한국문화원, 베이징, 중국
- 2000 문신 타계 5주기전, 가나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 문신 스케치·드로잉 자료전,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 문신 스케치·드로잉 자료전, 숙명여자대학교 문신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 문신언론보도자료전,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 문신언론보도자료전, 숙명여자대학교 문신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 1998 문신, Wooden Symmetry, 가나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 1996 1주년 흑단·친필 자료전,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 마산 MBC 문화방송 초대 추모전, MBC 경남, 창원, 한국
- 1995 문신예술 50년,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 문신 유작전, 예화랑, 서울, 한국
- 1994 문신예술 50년, 조선일보사·문화방송 공동주최,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한국
- 문신미술 50년, 문신미술관 개관전,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 1991 개인전, 빈켈화랑, 서울, 한국
- 개인전, 송하갤러리, 창원, 한국
- 유럽 순회 회고전, 부다페스트 국립역사박물관, 부다페스트, 헝가리
- 1990 개인전, 그로리치 화랑, 빈켈화랑, 서울, 한국
- 유럽 순회 회고전, 파리 아트센터, 파리, 프랑스
- 유럽 순회 회고전, 자그레브 국립박물관, 자그레브, 크로아티아(유고슬라비아)
- 유럽 순회 회고전, 사라예보 시립미술관, 사라예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989 개인전, 예화랑, 서울, 한국
- 1987 문신채화전, 한국화랑, 서울, 한국
- 1986 문신작품초대전, 예화랑, 서울
- 1983 개인전, 신세계미술관, 서울, 한국
- 1981 개인전, 미화랑, 서울
- 1980 문신화백귀국초대전, MBC경남, 창원, 한국
- 문신화백초대전, 창원상공회의소, 창원, 한국
- 개인전, 수로화랑, 국제화랑, 부산, 한국
- 1979 문신전, 현대화랑, 서울, 한국
- 문신전, 오를리 슈드 공항 갤러리, 파리, 프랑스
- 1977-76 귀향전, 한일은행, 창원, 한국
- 1976 귀국 개인전, 진화랑, 서울, 한국
- 1975 조각과 데생, 멘쉬 갤러리, 함부르크, 독일

- 1967 문신도불작품전, 신세계화랑, 서울, 한국
 1960 문신도불기념소품전, 미우만 백화점 화랑, 창원, 한국
 1953 제3회 문신 양화전, 르네상스 다방, 부산, 한국
 제3회 문신 양화전, 대구, 한국
 제3회 문신 양화전, 비너스 다방, 창원, 한국
 1949 제2회 문신양화개인전, 동화화랑, 서울, 한국
 1948 제1회 문신양화개인전, 동화화랑, 서울, 한국

단체전

- 2019 문신과 최성숙이 함께한 40년: 예술과 일상전,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2018 청춘예찬(靑春禮讚), 경남국제아트페어 특별전: 한국미술거장전 - 문신, 전혁림, 창원컨벤션센터, 창원, 한국
 2017 모던아트협회: 아방가르드를 꽃피우다!,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2012 문신·이응노의 아름다운 동행, 이응노 미술관, 대전, 한국
 창원조각비엔날레, 돌섬해상유원지, 창원
 2011 문신·이응노의 아름다운 동행,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2006 예화랑 개관 28주년 특별기획전, 예화랑, 서울, 한국
 2005 한국의 영혼, 제 3 회 발렌시아 비엔날레 특별초대전, 발렌시아, 스페인
 2006-04 A Reflection of Korea(한국의 모습),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뉴욕, 미국
 2004 스틸 오브 스틸: 스테인리스 조각이야기, 포스코미술관, 서울, 한국
 2000 한국 현대미술의 시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새천년맞이 국민대축제 광화문 2000 : 조각 카퍼레이드, 광화문 세종로, 서울, 한국
 홍콩·미국 세계 보석전, 홍콩, 중국
 1997 3인의 한국 예술가, 카루젤 드 루브르 쇼핑센터, 파리, 프랑스
 1992 세계 3대 조각 거장 특별전(문신, 헨리 무어, 알렉산더 칼더/유럽 순회 회고전), 파리 시청, 파리, 프랑스
 살롱 드 마르스(3월 살롱), 라데팡스, 파리, 프랑스
 살롱 드 메(5월 살롱), 파리, 프랑스
 살롱 그랑 에 쥘느 도주르디(오늘의 거장과 청년 살롱), 그랑팔레, 파리, 프랑스
 살롱 데 레알리테 누벨(신사실주의 살롱), 그랑팔레, 파리, 프랑스
 1991-89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1991 살롱 그랑 에 쥘느 도주르디(오늘의 거장과 청년 살롱), 그랑팔레, 파리, 프랑스
 살롱 데 레알리테 누벨(신사실주의 살롱), 그랑팔레, 파리, 프랑스
 1990 도쿄 아트 엑스포, 에이스화랑, 도쿄, 일본
 동시대 현대 회화, 드루오 리솔리외, 파리, 프랑스
 살롱 데 레알리테 누벨(신사실주의 살롱), 그랑팔레, 파리, 프랑스
 1989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 24인전, 파리 아트센터, 파리, 프랑스
 89 한국조각 미술대전, 한국종합무역센터, 서울, 한국
 1988 서울올림픽 국제 야외조각 초대전, 올림픽공원, 서울, 한국
 문신, 카르데나스 조각 모음 2인전, 한국화랑, 서울, 한국

- 1987 87 현대미술 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 1986 한국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 1985 85 현대작가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 1979 살롱 그랑 에 쥘느 도주르디(오늘의 거장과 청년 살롱), 그랑 팔레, 파리, 프랑스
 포름 에 비(형태와 삶), 오를리 쉬드 공항 갤러리, 파리, 프랑스
 동시대 조각 살롱, 폰트네수부아 시청, 폰트네수부아, 프랑스
 단체전, 메트르 알베르 화랑, 파리, 프랑스
 국제조각, 보드뢰이, 프랑스
 오늘의 조형 감성, 파리 4구청, 파리, 프랑스
- 1978 살롱 콩파레종(비교 살롱), 그랑 팔레, 파리, 프랑스
 포름 에 비, 파리, 프랑스
 살롱 드 메(5월 살롱), 라데팡스, 파리, 프랑스
 살롱 드 스킨처(조각), 폰트네수부아 시청, 폰트네수부아, 파리, 프랑스
 살롱 드 아트 사크레: 영적 표현, 퉁상부르 박물관, 파리, 프랑스
 살롱 그랑 에 쥘느 도주르디(오늘의 거장과 청년 살롱), 그랑 팔레, 파리, 프랑스
 현대 조각 77년, 동시대조각센터, 파리, 프랑스
 뚜르시 살아있는 미술(뚜르 예술 페스티벌), 뚜르 시청, 뚜르, 프랑스
 단체전, 메트르 알베르 화랑, 파리, 프랑스
- 1977 살롱 드 마르스(3월 살롱), 라데팡스, 파리, 프랑스
 살롱 그랑 에 쥘느 도주르디(오늘의 거장과 청년 살롱), 그랑 팔레, 파리, 프랑스
 살롱 데 레알리테 누벨(신사실주의 살롱), 파리 꽃정원, 뱅센, 프랑스
 살롱 드 스킨처, 폰-드니 쉬르 부아, 프랑스
 현대 조각 77년, 동시대조각센터, 파리, 프랑스
 조각 12인전, 파리 스킨처, 파리, 프랑스
 동시대 미술 페스티벌, 파리, 프랑스
- 1976 살롱 드 메(5월 살롱), 라데팡스, 파리, 프랑스
 살롱 그랑 에 쥘느 도주르디(오늘의 거장과 청년 살롱), 그랑 팔레, 파리, 프랑스
 살롱 콩파레종(비교 살롱), 그랑 팔레, 파리, 프랑스
 포름 에 비, 스트라포 갤러리, 파리, 프랑스
 동시대 회화전, 카네 아합 갤러리, 테헤란, 이란
 현대 조각, 동시대조각센터, 파리, 프랑스
- 1975 살롱 드 메(5월 살롱), 파리시립 근대미술관, 파리, 프랑스
 야외 국제조각전, 밀라노, 이탈리아
 젊은 조각 살롱, 엘리제 궁전, 파리, 프랑스
 살롱 그랑 에 쥘느 도주르디(오늘의 거장과 청년 살롱), 그랑 팔레, 파리, 프랑스
 파리 조각: 조각 소품전 1975, 유니베르시테 갤러리, 파리, 프랑스
- 1974 포름 에 비: 도시미학과 생명력 탐구, 셉탕드리옹 갤러리, 마르크 앙 바뢰이유, 프랑스
 살롱 드 메(5월 살롱), 그랑 팔레, 파리, 프랑스
 살롱 콩파레종(비교 살롱), 그랑 팔레, 파리, 프랑스

- 살롱 그랑 에 죄느 도주르디(오늘의 거장과 청년 살롱), 그랑 팔레, 파리, 프랑스
 한국 페스티벌, 샤이요 갈리에라 문화관, 파리, 프랑스
- 1973 살롱 드 마르스(3월 살롱), 생아우구스텐 전철역사, 파리, 프랑스
 살롱 드 메(5월 살롱), 파리시립 근대미술관, 파리, 프랑스
 포름 에 비, 파리, 프랑스
 조각의 숲, 파리 조각센터, 파리, 프랑스
 살롱 콩파레종(비교 살롱), 그랑 팔레, 파리, 프랑스
 조각 작품에서 나무의 역할, 그랑 팔레, 파리, 프랑스
 살롱 그랑 에 죄느 도주르디(오늘의 거장과 청년 살롱), 그랑 팔레, 파리, 프랑스
 목조각 7인전, 파리 조각센터, 파리, 프랑스
 엘리제 궁전 현대미술제 참가작가 그룹전, 파리, 프랑스
 공간을 위한 형태, 생제르맹앙레, 일드프랑스, 프랑스
 동시대 미술 국제교류전(라로셀 페스티벌), 생제르맹앙레, 일드프랑스, 프랑스
- 1972 살롱 그랑 에 죄느 도주르디(오늘의 거장과 청년 살롱), 그랑 팔레, 파리, 프랑스
 살롱 드 마르스(3월 살롱), 생아우구스텐 전철역사, 파리, 프랑스
 살롱 드 메(5월 살롱), 파리시립 근대미술관, 파리, 프랑스
 국제미술전 르 메닐 생드니, 생 드니, 프랑스
 누벨 크라방 갤러리 개관전, 파리, 프랑스
- 1971 아르-콩타트 개관 기념전, 뤽상부르 회관, 파리, 프랑스
 바젤 아트페어, 바젤, 스위스
 살롱 다르 사크레(성(聖)미술 살롱), 파리, 프랑스
 현대조각, 테레즈 루셀 갤러리, 페르피냥, 프랑스
 색으로 살다, 파리, 프랑스
- 1970 국제조각 심포지엄, 르 발카레스 사장미술관, 르 발카레스 프랑스
 조형예술 페스티벌, 몽타르지, 프랑스
 현대조각, 생제네비브, 프랑스
 형태와 조각, 폰데어회 갤러리, 함부르크, 독일
 미술과 마티에르, 트루아, 프랑스
- 1959 제5회 모던아트협회전, 국립도서관화랑, 서울, 한국
 제4회 모던아트협회전, 동화화랑, 서울, 한국
- 1958 제3회 모던아트협회전, 화신화랑, 서울, 한국
- 1957 제2회 모던아트협회전, 화신화랑, 서울, 한국
- 1947 조선미술동맹전, 동화화랑, 서울, 한국

수상

- 1995 대한민국 금관 문화훈장 추서
- 1994 프랑스 레종 도뇌르 오피시에(Légion d'Honneur Officier, 문예공로훈장)
- 1992 프랑스 레종 도뇌르 슈발리에(Légion d'Honneur Chevalier, 문예공로훈장)
- 제 11 회 대한민국 문화부문 세종문화상

1984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

소장

파리시립현대미술관, 프랑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역사박물관, 헝가리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한국

숙명여대 문신미술관, 한국

포항시립미술관, 한국

소마미술관, 한국

아라리오뮤지엄, 한국

권오상

1974 년 서울 출생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학력

2004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졸업

200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주요 개인전

- 2023 서울의 멋: 반짝이는 좌대와 사물의 조각들, 비더비 커뮤니케이션 라운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한국
에어매스: 바람이 다니는 길, 롯데갤러리, 에비뉴엘 6F 아트홀, 서울, 한국
- 2022 나를 닮은 사람,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Still Life, 에브리데이몬데이 갤러리, 서울, 한국
아워세트, 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 광고, 수원, 한국
- 2021 조각의 시퀀스, TYPE, 서울, 한국
- 2016 릴리프릴리프, 윌링앤딜링, 서울, 한국
The Sculpture,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 중국
The Art of the Image_New Sculpture, 에르메스, 시드니, 호주
Recontemporary, 워터풀갤러리, 뉴욕, 미국
New Structure and Relief,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한국
- 2015 구심점들, 아라리오뮤지엄, 탑동바이크샵, 제주, 한국
New Structure, 백아트, 로스앤젤레스, 미국
New Structure, 오키나와현대미술센터, 오키나와, 일본
- 2014 Structure, 페리지갤러리, 서울, 한국
Osang Gwon, 조이스파리, 파리, 프랑스
Osang Gwon: The Deodorant Type, 스타트오일 아트프로그램, 스타트오일, 바롬, 노르웨이
- 2013 Osang Gwon, 테뎡공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싱가포르, 싱가포르
Postmodern Times, 하다컨템포러리, 런던, 영국
Masspatterns, 13 S/S Collaboration Exhibition #03, 맨메이드 우영미, 서울, 한국
- 2012 권오상,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한국
- 2011 Adore, 안도파인아츠, 베를린, 독일
Sculpture, 두산갤러리, 서울, 한국
- 2010 토르소, 갤러리 2, 서울, 한국
Deodorant Type, 두산갤러리, 뉴욕, 미국
- 2009 Deodorant Type, 아라리오갤러리, 뉴욕, 미국
- 2008 Deodorant Type: Sculpture by OsangGwon, 맨체스터 시립미술관, 맨체스터, 영국
- 2007 Osang Gwon, 아라리오갤러리, 베이징, 중국

주요 단체전

- 2024 깎아 들어가고 붙여나가는,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한국
언박싱 프로젝트 3: 마케트, 뉴스프링프로젝트, 서울, 한국
- 2023 보통 사람들의 찬란한 역사,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한국
경계-없는, 아난티 컬처클럽, 부산, 한국
낭만적 아이러니,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 2022 은반은 뜨거운 빛으로 너울대다, 박태준기념관, 부산, 서울, 한국
김복진과 한국 근현대 조각가들,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한국
예술과 산업, 울산시립미술관, 울산, 한국
Hallyu! The Korean Wave, V&A South Kensington, 런던, 영국
하이커 아트뮤지엄 개관전, 하이커 그라운드(한국관광공사), 서울, 한국
각, 하이트컬렉션, 서울, 한국
꿈적꿈적, 헬로우뮤지움, 서울, 한국
Another Asian Artist, THE SHOPHOUSE, 홍콩
The Glitter Path, 아트스페이스 호화, 서울, 한국
신소장품전: 연결_시제,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한국
- 2021 Art Token: KARTZ Art Shapes the Future, 한강 노들섬, 서울, 한국
아케인, 썬스, 서울, 한국
The Premiere, 청담 에이라운지, 서울, 한국
Texture House, 피아크, 부산, 한국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한국
- 2020 네/아니오/좋아요/싫어요/사랑/혐오/댓글/공유: 2000-2020 년 한국 대중문화의 초상, 아트딜라이트, 서울, 한국
지구생활백서, 구하우스, 양평, 한국
이공간, 그 장소: 헤테로토피아, 대림미술관, 서울, 한국
리믹스,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한국
- 2019 가구,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서울, 한국
To the Moon with Snoopy, 롯데뮤지엄, 서울, 한국
MOCA Triangle,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판교, 한국
제 3 의이미지, 김종영미술관, 서울, 한국
- 2018 무한주, 아라리오갤러리 라이즈호텔, 서울, 한국
Post 88',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사유 공간 창작 노트 II, 환기미술관, 서울
- 2017 매체연구: 긴장과 이완, 대구미술관, 대구, 한국
Card: The Cards Players, Shanghai Gallery of Art, 상하이, 중국
이것은 현대미술관이다: Everyone is an Artist, Everything is Art, K 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 2016 Jaguar XJ Rare Design Studio,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서울, 한국
- 2015 Tech 4 Change, Vestfossen Kunstlaboratorium, 베스트포센, 노르웨이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展,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서울, 한국
- 2014 Pillars,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한국

- 투마로우 2 부, 문화지형도, DDP, 서울, 한국
 Medium at Large, 싱가포르미술관, 싱가포르
 K-pop : Korean Contemporary Art, Taipei MoCA, 타이페이, 타이완
- 2011 ARTISTS with ARARIO part 1,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한국
 The Korean Miracle; A Cultural Evolution, Asia House, 런던, 영국
 Embracing the void, HADA Contemporary, 런던, 영국
- 2010 미래의 기억들, 삼성리움미술관, 서울, 한국
 Korean Eye: Fantastic Ordinary, 사치갤러리, 런던; The Arts House, 싱가포르, 싱가포르
 라운드어바웃 컬렉션(Roundabout Collection) 소장품전, 웰링턴시립미술관, 웰링턴, 뉴질랜드
 만레이와 그의 친구들의 사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뉴욕포토편제스티벌, 스맥멜론, 뉴욕, 미국
 A POSITIVE VIEW, 서머셋하우스, 런던, 영국
 ARTISTS with ARARIO,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천안, 한국
- 2009 Manipulating Reality, 스트로치냐 현대미술센터, 피렌체, 이탈리아
- 2008 젊은날의 초상, 아반세이 컨템포러리, 취리히, 독일
 박하사탕: 한국현대미술중남미순회전, 아르헨티나국립현대미술관,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협업

- 2022 서울예술단 피지컬 퍼포먼스 잠시 놀다_Motivated by 구운몽, 예술의 전당, 서울, 한국
 더 프리퀴 by Mint:ist'Club, 플랫폼엘, 서울, 한국
- 2021 라이엇게임즈, 서울, 한국
- 2020 New Structure of Sculpture - A Trip to Another Joyful Place, 에르메스 대구신세계백화점, 대구, 한국
- 2019 미술책방,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 2018 BMW, 서울, 한국
- 2013 Masspatterns, 맨메이드우영미, 서울, 한국
- 2011 Fashion into Art, 보그코리아, 플라토, 서울, 한국
- 2009 W 코리아, 2009년 8월호, 서울, 한국
 Hoodie on Moment, 나이키스포츠웨어, 갤러리현대강남스페이스, 서울, 한국
- 2008 하퍼스바자 콜라보레이션, 2008 분더샵, 서울, 한국
 'Keane', 'Perfect Symmetry' 앨범, 런던, 한국
 NIKE SU08_DUNK, 나이키, Be True 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 2006 펜디 콜라보레이션, 인갤러리, 서울, 한국
- 2002 Opaque 백화점광고, 도쿄, 한국

수상

- 2013 김세중청년조각상
 2001 사진비평상

레지던시

- 2013 테멘공레지던시, 싱가포르, 싱가포르
- 2010 두산레지던시스튜디오, 뉴욕, 미국
- 2005 국립창동스튜디오, 서울, 한국
- 2003 영은미술관, 경기도광주, 한국

주요 소장

- The Zabłudowicz Collection, 미국
- Universal Music Group, 미국
- Burger Collection, 독일
- David Roberts Art Foundation, 영국
- Roundabout Collection, 미국
- Hermes Collection, 호주
- 싱가폴미술관, 싱가포르
-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 삼성미술관리움, 한국
-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 부산시립미술관, 한국
- 포항시립미술관, 한국
- 경기도미술관, 한국
- 대구미술관, 한국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한국
- 영은미술관, 한국
- 아트선재센터, 한국
- 일본아사노연구소, 일본
- 주한스위스대사관, 한국
- 삼성정밀화학, 한국
- 하나은행, 한국
- 롯데뮤지엄, 한국
- 라이폴, 한국
- LMC, 한국
- YG 엔터테인먼트, 한국
- 맨메이드우영미, 한국
- 아라리오컬렉션, 한국
- 두산컬렉션, 한국
- Statoil ASA, 노르웨이
- Ole Faarup 컬렉션, 덴마크
- RC Nursery Private Limited, 인도

ARARIO GALLERY SEOUL

MOON Shin, GWON Osang: *Carving in, Modeling out*

Title	: Carving in, Modeling out
Artist	: MOON Shin (1922-1995), GWON Osang (b. 1974)
Dates	: 1 May (Wed) – 22 June (Sat)
Venue	: ARARIO GALLERY SEOUL (85 Yulgok-ro, Jongno-gu, Seoul, Korea 03058) B1F, 1F, 3F
Artworks	: 49 works in total (Inc. sculpture and drawing)

[Artwork images and Installation view]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3BtafOmIthT315YJzcFcQBhV-vxGR1X8?usp=drive_link

[Contact]

ARARIO GALLERY SEOUL / T. +82 (0) 541-5701 / E. info@arariogallery.com

[Media Enquiries]

PARK Miran, Deputy Director, M. +82(0)10-6768-8812 / E. miran.park@arariogallery.com

HWANG Boyoung, Associate, M. +82(0)10-7297-3597 / E. boyoung.hwang@arariogallery.com

1. Exhibition Overview

ARARIO GALLERY SEOUL presents the joint exhibition titled *Carving in, Modeling out* featuring sculptors MOON Shin (1922-1995) and GWON Osang (b. 1974). This exhibition delves into the attitudes of two sculptors towards the materiality and spatiality of sculpture, showcasing selected pieces that highlight their distinctive approaches. Moon Shin, a trailblazer since the 1960s, is celebrated for his innovative and pioneering contributions to the medium and form within the history of Korean sculpture. On the other hand, GWON Osang, active since the 1990s, is recognized for his fresh and experimental works, notably his use of photography in creating lightweight sculptures. The exhibit presents a range of Moon Shin's sculptures and drawings from the 1970s through the 1990s, alongside recent sculptures by GWON Osang that are marked by diverse material and formal explorations.

2. Exhibition Theme

※ Please use the Google Drive link on the first page to access and download the individual images.

※ [Credit for all Artwork Images:](#)

© GWON Osang /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ourtesy of the Artists & ARARIO GALLERY.



MOON Shin
Untitled3 (1995)
Stainless steel
170 x 43 x 144(h) cm

Rather than presenting the works of the two artists separately in chronological order, the exhibition mixes their works naturally across three themed exhibition spaces. This method emphasizes their passionate experimental spirit and willingness to challenge across different eras. Furthermore, GWON Osang has created special works for this exhibition that reinterpret and pay homage to MOON Shin's works, moving beyond merely listing the works of the two sculptors to showcasing their interaction. The primary reason for linking these artists is their common focus on sculptural research through form construction and experimentation with various materials, which prominently characterizes both sculptors.



GWON Osang
*MOON Shin Reflecting
Gwon Osang's Sculpture
Studio* (2024)
Archival pigment print,
mixed media
84 x 60 x 200(h) cm

MOON Shin, who transitioned from being a painter to a sculptor, focused on a sculptural approach that involved arranging and constructing minimal sculptural units rather than representing specific forms or images. MOON's abstract sculptures resulted in unique forms featuring organic shapes that evoke living organisms or distinctive curves that express his inherent rhythm. Notably, his sculptures often balance subtly between symmetry and asymmetry, creating a tension and emphasizing frontality, with perfect surface treatments being one of the delights of observing MOON's sculptures. Beyond the uniqueness of form construction, MOON was pioneering in his use of materials and methods, where he often built basic frameworks with wire or metal mesh, overlaying these with plaster that he could carve, or shaping forms from flat, sawn wood rather than from solid logs. This innovative approach involved constant experimentation with various materials and techniques. MOON's drawings, which are also an important part of his oeuvre, captivate viewers with their organic beauty through the dynamic interplay and expansion of the most basic sculptural forms such as circles and lines. This exhibition highlights MOON's works from the 1970s along with sculptures that were created from the late 1980s to the 1990s.

Another artist, GWON Osang, emerged in the late 1990s with his innovative approach to lightweight sculpture. GWON experimented and introduced his *Deodorant Type* series, which are also called photo sculptures, where he carved shapes from isopink, then attached



MOON Shin
Untitled (1992)
 Stainless steel
 84 x 33 x 210(h) cm

photographs and added a coating to create the final surface. This approach not only challenged the identity of sculpture but also provided a clear visual alternative, garnering immediate attention upon its introduction. GWON has continuously presented various sculptural and technical studies. In this exhibition, not only are new abstract photo sculptures introduced, but existing photo sculptures are also expanded and for the first time, these works in the forms of busts and full figures have been reinterpreted in bronze, a material typically associated with traditional sculpture. Additionally, an expanded version of his three-dimensional photo sculptures is presented in relief, emphasizing one side of the sculpture. This series, which the artist describes as depicting the flow of air, prominently features holes that connect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sculpture, creating a unique and varied spatial sense. These holes in the sculptures reflect the artist's contemplation on creating small, enclosed spaces within the sculptures themselves.



GWON Osang
Reclining Figure (2024)
 Bronze
 160 x 46.8 x 85.2(h) cm

The exhibition takes place across three floors of the gallery. The basement space shows MOON Shin's drawings from the 1970s alongside his sculptures made of ebony, bronze, and stainless steel from the late 1980s and 1990s. This same space also presents GWON Osang's new abstract photo sculptures and his bronze busts and full-figure sculptures for the first time. The works of both artists are intermingled, showcasing their intensive explorations of various materials and techniques. In the first floor space, two of MOON's stainless steel sculptures are exhibited. These works demonstrate the characteristic frontality and are designed to reflect their surroundings and have the unique ability to draw the surrounding space into the sculpture itself, encapsulating it within their forms. Accompanying these are two significant sculptures by GWON Osang. Particularly noteworthy is an enlarged and produced work of one of MOON's sculptures that carries GWON's reinterpretation on the aesthetics of MOON's reflective stainless steel sculpture into photo sculptures. Another work by GWON is a 5 meter wide relief photo sculpture which delves into the artist's contemplation on the use of holes in his sculptures.



MOON Shin
Peace2 (1988)
 Bronze
 100 x 30 x 54(h) cm

Finally, the third floor space presents works that envision 'sculptures that humans can live in'. These were conceptualized by MOON in the 1960s as he contempl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culpture and architecture. The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serves as the most appropriate example of this concept and sculptures that humans can live in were rarely realized in MOON's actual sculptural works and predominantly exists in his drawings. GWON has also recently introduces a series of sculptural furniture that can be used by humans, and this exhibition features sofas and lighting from this series. This space provides an opportunity to see how MOON's thoughts on sculptures that humans can inhabit are reinterpreted by GWON into usable sculptural objects, examining how these ideas transform within an expanded spatial context that influences the surrounding environment.



GWON Osang
Towards the Universe (after MOON Shin) (2024)
 Archival pigment print, mixed media
 60.4 x 54.6 x 100(h) cm

3. Installation

※ Please use the Google Drive link on the first page to access and download the individual images.

Credit for all Installation view Images: **Courtesy of the Artists & ARARIO GALLERY.**



Installation view of ARARIO GALLERY SEOUL (B1F)



Installation view of ARARIO GALLERY SEOUL (B1F)



Installation view of ARARIO GALLERY SEOUL (1F)



Installation view of ARARIO GALLERY SEOUL (1F)



Installation view of ARARIO GALLERY SEOUL (3F)



Installation view of ARARIO GALLERY SEOUL (3F)

4. Artist Introduction

MOON Shin was born in 1922 in Kyushu, Japan, and spent his childhood in Masan, Korea. 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Fine Arts at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in 1945. After returning to Korea, he held over ten solo exhibitions. In 1961, seeking new artistic experiences, he moved to France, where he began his active career as a sculptor in 1970 with his work *Soleillonantes* at the 1970 Symposium International de la Sculpture in France. MOON exhibited his works at various solo and group exhibitions at various institutions including the Centre de Sculptures Contemporaines, Grand Palais, Musée d'Art Moderne de Paris, Paris Sculpture Center, and Paris Art Center, in Paris, France. In 1980, MOON permanently returned to his hometown Masan and received the Ordre national de la Légion d'honneur from the French government and the Sejong Cultural Award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of Korea. After he passed away, major art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Duksugung (Seoul, Korea, 2022), Lee Ungno Museum (Daejeon, Korea, 2011), and Woolim Art Museum (Goyang, Korea, 2008) have held exhibitions illuminating MOON's artistic world. MOON's works are held in collections at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Museum of Art,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in Korea and Musée d'Art Moderne de Paris in France.

GWON Osang was born in 1974 in Seoul, Korea. 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Sculpture of Hongik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in 2000 and obtained his master's degree from the the graduate school of the same university in 2004. He has held solo and collaborative exhibitions at Lotte E Avenue Art Hall (Seoul, Korea, 2023), Ilmin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2), Suwon Museum of Art (Suwon, Korea, 2022), ARARIO GALLERY (Seoul, Korea; Shanghai, China, 2016), among others. His solo exhibitions have been showcased worldwide at venues such as Hermès (Sydney, Australia, 2016), Waterfall Gallery (New York, USA, 2016), Okinawa Contemporary Art Center (Okinawa, Japan, 2015), Joyce Paris (Paris, France, 2014), HADA Contemporary (London, UK, 2013), Manchester Art Gallery (Manchester, UK, 2008). Group exhibitions showcasing his works have been held at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Korea, 2023), V&A Museum (London, UK, 2023), The Shop House (Hong Kong, 2022),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1), Daelim Museum (Seoul, Korea, 2020), Pohang Museum of Steel Art (Pohang, Korea, 2020), Lotte Museum (Seoul, Korea, 2019),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2015), Singapore Art Museum (Singapore, 2014), Saatchi Gallery (London, UK, 2010), Burger Collection (Berlin, Germany, 2009), Bologna Museum of Modern Art (Bologna, Italy, 2004), and FOAM (Amsterdam, The Netherlands, 2003). In addition, GWON has collaborated with various brands such as Riot Games, Jaguar, BMW, Wooyoungmi, and Hermès to bring contemporary art closer to the public. His works are part of the collections at institutions including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Museum of Art, Busan Museum of Art, and Leeum Museum of Art in Korea.

5. Exhibition Text

Into the Space, Even More

Ahn Soyeon (Art Critic)

1. (Round) Surface

The stainless steel Untitled sculptures by MOON Shin (1922-1995) exemplify their symmetrical structure, captivatingly absorbing the surrounding space into their gleaming surfaces. The polish of the stainless steel makes the surface of the sculptures shimmer like a mirror, strangely elongating the perceived surface area. This paradoxical structure manifests a sculptural illusion where the fully enclosed volume appears to be lifted off the ground by thin supports, converting its weight into a sense of motion through gravity. This metal sculpture, symmetrical along a vertical axis, evokes an organic form infusing a structural harmony within. Yet, at the same time, due to its overwhelming reflective surface, the viewer's direct gaze is repelled and redirected backward thwarting deeper visual penetration. For instance, the experience of initially perceiving the shape's outline from a distance, separating it from the background as a balanced and symmetrical mass, shifts as one approaches closer. Instead of a clarified view of the outlines, one is drawn to the lustrous sheen of the surfaces, witnessing a strange fragmentation as the surrounding space bends in reflection. Ultimately, these sculptures provoke a fascination with the unseen, the perhaps unnecessary, the hidden space behind – the negative space that

endlessly intrigues and captivates.

The round curves and polished surfaces of MOON's sculptures reflect the ever-shifting perspectives of bodies in space. Despite emphasizing the contours of sculptural forms that transcends physical space through strict symmetry, these sculptures paradoxically ripple with remnants of reality inseparably linked to their form. The gleaming surface of these smooth, rounded sculptures seems to deflect any attempt to penetrate their full volume, imparting instead undulating waves upon their three-dimensional shape, as if by magic. This paradoxical tension is prevalent even when the material is wood.

After creating the model and melting the brass to pour into the mold, one must then polish it to a shining bronze finish. This process is by no means easy, but it is thrilling to undertake. (...) When one carves wood with a chisel and then examines it in sunlight, the color of the wood emerges from within. This can sometimes remind one of a Rembrandt painting, where the rough texture prominently stands out.

When reflecting on the work of MOON, one is immediately drawn into his sculptural world characterized by explorations of volume within symmetrical structures crafted from hard metals and wood. The smooth, rounded surfaces of his sculptures evoke tactile illusions, simultaneously conveying sensations of coldness and softness, while emanating an inherent expansive energy outward. As seen in his essay *Bronze and Wood*, MOON's fascination was deeply embedded in the "surfaces" encasing the symmetrical structures of his sculptures, each marked by unique traces. Whether it was bronze or ebony, MOON was captivated by the "physical properties of materials" particularly their responsiveness to light and the resulting "states of surfaces", devoting considerable effort to their exploration. Confronted with the intense contours emanating from an internal axis of symmetry, the surfaces of MOON's sculptures sometimes captivate our gaze, akin to the shimmering undulations of a deep sea surface at midday, momentarily obscuring our perception of their thickness.

2. Confrontation

In the white space on the first floor of the gallery where MOON Shin and GWON Osang's exhibition titled *Carving in, Modeling out* begins, two stainless steel sculptures by MOON and one photo sculpture by GWON stand facing each other, aligned in height. This arrangement evokes a triangular confrontation, creating a dynamic flow of movement within the space. On one side, a relief by GWON, approximately five meters wide, highlights its sculptural qualities by linking irregular, round units. Positioned on the floor, GWON's work *MOON Shin Reflecting GWON Osang's Sculpture Studio* (2024), measuring 200 x 84 x 60 cm, mirrors the approximate two-meter height of MOON's sculptures, guiding the viewer's gaze throughout the exhibition space. Placed deeper within the space, *MOON Shin Reflecting GWON Osang's Sculpture Studio* by GWON and the two works *Untitled* and *Untitled 3* by MOON stand parallel, their solid volumes creating balanced contours that distinctly contrast against the white surroundings.

The shiny surface of the sculpture is considered a crucial element, enhancing not only the three-dimensional volume accentuated by "light," but also visually reinforcing its dynamism. In this context, MOON goes beyond mere "bronze polishing" and focuses instead on highlighting the depthless surface of his sculptures through the intense shine of stainless steel. This approach aligns with the mid-20th-century sculptors who experimented with industrial materials in assembling and constructing sculptures, and with modern sculptors who utilized object effects on three-dimensional surfaces to evoke painterly planes. Similarly, GWON, from his early "light sculptures," explores instances where he transforms historical sculptural forms into symbolic supports within his lightweight photo sculptures. This method reflects his ongoing engagement with the conceptual challenges of "new sculpture" blending historical sculptural forms with contemporary materials and methods.

Confronted by MOON's sculptures, GWON's work prompts a reflection on his longstanding exploration of the surface of sculptures. GWON's recent solo exhibition *AIR MASS: a path of wind* (2023) likely marked a pivotal moment. Initially pursuing "lightness," GWON's sculptures have gradually evolved, now showcasing a striking contrast between "light" surfaces transferred or reflected onto "bigger and heavier" supports. In particular, *MOON Shin Reflecting GWON Osang's Sculpture Studio* positioned alongside MOON's *Untitled* series, intricately examines the events unfolding on its surface. GWON acquired a small bronze sculpture by MOON, and placed it in his studio. Facing this sculpture daily, which featured strict symmetry and rounded volumes, GWON likely envisioned possibilities, as he had done with classical monumental statues [heads, busts, statues, reliefs, etc.]. Drawing from the works by Alexander Calder or Henry Moore, GWON may have envisioned using these sculptures as supports to refract numerous real images, either imitating or renewing sculptural situations. In becoming an observer or insider involved in the distinct separation between the "support"

(including its interior) and the "surface" (reflecting the exterior) induced by the sheen surface of MOON's sculpture, GWON may have discovered a mysterious homogeneity in the old stainless steel sculpture of the late sculptor. This discovery could have unveiled an old pathway to dissecting the support and surface of a sculpture, as well as intersect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hips within sculpture, thereby revealing the "intricacies of sculpture."

MOON Shin Reflecting GWON Osang's Sculpture Studio is a photo sculpture created by GWON based on his Deodorant Type series. It has been significantly enlarged to match the appropriate size of MOON's stainless steel sculptures and possesses a polished surface that reflects and refracts like a mirror. GWON transferred the sculpture of MOON, which peculiarly refracted and reflected his studio space onto its surface, into a photo sculpture. This transformation primarily emphasizes the distortion and metamorphosis of the surface, characteristic of the deodorant type's imperfect resolution when transitioning from flat photo to three-dimensional sculpture. Furthermore, the "light sculpture" surface effect he experimented with in his solo exhibition AIR MASS: a path of wind—the use of mirrors as sculptural supports and architectural elements—has been transferred to a sculptural form. The Masspatterns series, staged within the space on mirrored bases, alongside the expansive inflatable Air-Mass series, creates a maze-like effect that distorts our sense of direction and wraps the substantial volume of a deodorant-type sculpture in an unreal texture. This juxtaposition navigates through the internal and external realms of the intriguing MOON Shin Reflecting GWON Osang's Sculpture Studio, sitting at the intersection of our eyes, body, perception, and cognition. GWON has effectively positioned MOON's sculptures within this mediating framework, enveloping both tangible space and sculptural form in an immersive, distorted reality.

3. Hole, Into the Space

The relief Path of the Wind (2024) on the wall emphasizes a re-examination of "holes" in contemporary abstract sculpture, which secure sculptural space. GWON, who has already focused on the empty voids implied as a sculptural feature in Henry Moore's organic sculptures, connects these holes wrapping the three-dimensional volume and curvature of the sculpture to elicit imaginations of an organically abstract entity, akin to a horizontally extended reclining figure. The holes within the sculpture open up the "other" three-dimensional space for us, enabling both a connection and a separation from the actual space. In other words, it proves both the realm of real space that envelops the sculpture and an unknown territory unreachable by our gaze.

GWON's focus on the holes and empty spaces in contemporary sculpture might be because these elements seem suitable for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an external logic that breaks away from the internal order of sculpture. Much like how the polish of stainless steel sculptures refracts the external environment, distorting the surface and deviating from its internal logic and contours, this attention to the surface detached from the internal support represents a credible attempt by contemporary sculptors to renew the sculptural experience in three dimensions. Considering MOON's significant sculpture Soleillonautes (1970), the repetitive and symmetrical order of hemispheres ascending along the vertical axis in this 13-meter wooden sculpture also suggests a perceptual experience that seems to disappear into the void enveloping it, which resonates with GWON's reliefs.

GWON's Wind Hole Relief (2024) series, installed alongside the two Reclining Sofa works(2024), gives the impression that the support structure of the sculpture, referencing Henry Moore's reclining figures, is directly placed in the real space. This suggests that, at least following the lineage of GWON's photo sculptures, the surface appears as an internal support that is not yet fully covered. However, when attempting a more metaphorical approach, the two works from the Reclining Sofa series suggest a connection with The Sculpture 2 (2005), a hefty supercar made of bronze painted with orange paint. Furthermore, this approach links to recent daring attempts where traditional deodorant type photograph sculptures are cast in bronze, and the data from the photo sculptures is painterly transferred onto their surfaces. Thus, the Reclining Sofa series also enters the logic of separating and rearranging the sculpture's support and surface, willingly embracing the situation "that looks like a sculpture," as proposed by GWON. This approach emphasizes the experimental and conceptual nature of his work, blending sculpture with elements of painting and photographic art to challenge traditional boundaries and perceptions of sculpture.

MOON sought to seamlessly integrate his sculptures into his living spaces, blurring the lines between architecture, craftsmanship, and nature. His aim was for his works to appear like furniture, blend harmoniously with the environment, and take on architectural qualities. This approach traces back to his early works, where he hand-carved wooden frames to encase his paintings, creating a sculptural presence that intertwined with the pictorial space. This concept reflected a desire to merge sculpture and painting into a cohesive whole. This aligns with GWON's interest in "larger and heavier" sculptural supports to enhance new painterly surfaces, connecting the endeavors of both artists in exploring how

sculptures can enrich and interact with the realm of painting.

On a broad and white pedestal, the large and small sculptures of MOON and GWON are uniformly "facing forward," fully showcasing the volume of the sculptures occupying the arbitrary space. MOON's sculptures, emphasized by their symmetry, continuously reveal rounded holes and surfaces that either transmit or reflect light, fulfilling the three-dimensional illusion—painterly and relief-like totality—of the sculpture. Paradoxically utilizing this, GWON overlays two-dimensional and painterly surfaces onto the fragmentary supports of sculptures from which such illusions have been removed, thus twisting the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sculpture and painting once again. This approach challenges and reinterprets the conventional boundaries between these art forms, exploring new ways to perceive and interact with sculptural and painterly spaces.

As one leans in to closely examine the sculptures of MOON and GWON lined up on a white base, one will experience a shift from the solid outlines that initially captured one's attention from afar to being captivated by their smooth surfaces, unable to look away as one discovers the intricate details up close.

The sheen of the bronze surfaces and the textures of colors emerging from the wood, which MOON described, seem to wrap the rounded volumes, creating an illusion of spatial magic by themselves. GWON, inspired by MOON's symmetry, created *Towards the Universe* (after MOON Shin) (2024), where the sculptures seem to take off into space, supported by a symmetrical piece. On one side of the exhibition space, the surface of MOON's symmetrical sculpture appears to reflect an (imaginary) universe. GWON contrasts this by placing his lighter sculptures on the substantial base of the bronze sculptures, wrapping them in a "more photographic," painterly lightness, creating an inversion. *Head(LP)* (2024) and *Reclining Figure* (2024) represent another attempt at "light sculptures", featuring works that are seamlessly painted over bronze (as if to conceal it beneath).

The joint exhibition of MOON Shin and GWON Osang is less a pairing of equal prominence between the two sculptors and more an exhibition that includes a referential critique by GWON of MOON, and vice versa. Discussing the modernity of MOON's sculptures by examining the paradoxical expansion and separation of their surfaces—which goes beyond simple symmetry (*symétrie*)—will enrich our understanding of perception and cognition when discussing his sculptures. As GWON's photo sculptures enter a phase of self-reference, the task of imagining and constructing art historical references to critique the separation between sculptural support and surface is also considered a contemporary artist's challenge. In this context, the interaction that transcends the temporal gap between a late modern sculptor and a contemporary mid-career sculptor opens up possibilities for thought "about" or "by" sculpture, enriching the discourse on how we perceive and engage with sculptural forms across generations.

6. CV

MOON Shin

1922-1995, born in Kyushu, Japan

Education

1945 BFA Dept. of Painting,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Tokyo, Japan

Solo Exhibitions

- 2023 *MOON Shin Monograph: Soar*,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 2022 *MOONSHIN 1992-1995*,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Soul of Sculpture,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Moon Shin Retrospective: Towards the Univers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 2019 *MOON Shin Architecture Drawing*,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 2017 *MOON SHIN 1960s*,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 2015 *70 Years of MOON Shin Art Retrospective*,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 2013 *MOON Shin Pottery and Paintings - The World of Drawing on White Porcelain*,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 2012 *The Journey of Life and Art - MOON Shin Theme Drawing*,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Changwon Sculpture Biennale, Dalseom Maritime Recreation Area, Changwon, Korea
- 2011 *A Confluence of Passion and Tenacity - Wooden Sculpture of MOON Shin*,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 2009 *An Early Painting of Sculptor MOON Shin*,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 2008 *The Artist, MOON Shin*, Oulim Art Gallery, Goyang, Korea
Remember 2007: The Report-Video-Photograph Of MOON Shin,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 2007 *MOON Shin Total Art Festival in Masan*,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 2006 *MOON Shin - Sculptureausstellung Anlässlich der Fussball - WM 2006*, Baden=Baden Kurhaus, Baden-Baden, Germany
MOON Shin Small Sculptures,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MOON Shin Flame of Sculptures, Gana Art Park, Yangju, Korea
- 2005 *MOON Shin The 10th Anniversary Retrospective*,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Moonshin Museum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ana Art Center cooperation, Gana Art Center, Seoul, Korea
The Great Artist, MOON Shin, MOON Shin The 10th Anniversary Retrospective, MBC Gyeongnam Art Hall, MBC Gyeongnam, Changwon, Korea
- 2004 *Architecture Drawing*,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MOON Shin, Drawing and Sculpture, Moonshin Museum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2002-01 *Permanent Exhibition, Overseas Public Relations Center of Government Information Agency*, Korean Cultural Center, China, Beijing, China
- 2000 *MOON Shin The 5th Anniversary Retrospective*, Gana Art Gallery, Seoul, Korea
MOON Shin Sketch and Drawing,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MOON Shin Sketch and Drawing, Moonshin Museum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MOON Shin Press Release,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MOON Shin Press Release, Moonshin Museum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1998 *MOON Shin, Wooden Symmetry*, Gana Art Gallery, Seoul, Korea
- 1996 *Ebony-Handwritten Manuscript, MOON Shin The 1st Anniversary Retrospective*,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MOON Shin Retrospective, MBC Gyeongnam, Changwon, Korea
- 1995 *50 Year of MOON Shin Art*,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Posthumous Work of MOON Shin, Gallery Yeh, Seoul, Korea
- 1994 *50 Year of MOON Shin Art*, The Chosun Daily- MBC, Chosun Gallery, Seoul, Korea
- 1992 *Europe Tour Retrospective*, Musée d'Art Moderne de Paris, Paris, France
- 1991 *Solo Exhibition*, Winkel Gallery, Seoul, Korea
Solo Exhibition, Gallery Songha, Changwon, Korea
Exposition Rétrospective Itinérante, Budapesti Történeti Museum, Budapest, Hungary
- 1990 *Solo Exhibition*, Growrich Gallery, Winkel Gallery, Seoul, Korea
Solo Exhibition, Ace Gallery, Seoul, Korea
Exposition Rétrospective Itinérante, Paris Art Center, Paris, France
Exposition Rétrospective Itinérante, Prostor Museum Zagreb, Zagreb, Yugoslavia(Croatia)
Exposition Rétrospective Itinérante, Sarajevo Municipal Museum of Modern Art, Sarajevo, Bosnia and Herzegovina
- 1989 *Moon Shin*, Gallery Yeh, Seoul, Korea
- 1987 *Encres de Chine*, Hanguk Gallery, Seoul, Korea
- 1986 *Invitational Exhibition of Moon Shin*, Gallery Yeh, Seoul, Korea
- 1983 *Solo Exhibition*, Shinsegae Gallery, Seoul, Korea
- 1981 *Solo Exhibition*, Mi Gallery, Seoul, Korea
- 1980 *Homecoming Exhibition*, MBC Gyeongnam, Changwon, Korea
Solo Exhibition, Sooro Gallery, Kukje Gallery, Busan, Korea
Solo Exhibition, Changwon Korcham, Changwon, Korea
- 1979 *Moon Shin*, Hyundai Gallery, Seoul, Korea
Moon Shin, l'Aéroport d'Orly-Sud, Paris, France
- 1976-77 *Homecoming Exhibition*, Hanil Bank, Changwon, Korea
- 1976 *Moon Shin*, Homecoming Exhibition, Jean Gallery, Seoul, Korea
- 1975 *Exposition Personnelle de Sculptures et Dessins*, Galerie Mensch, Hamburg, Germany
- 1967 *Moon Shin Exhibition*, Shinsegae Gallery, Seoul, Korea
- 1960 *Moon Shin Small Work Exhibition*, Miuman Department Store Gallery, Masan, Korea
- 1953 *3rd Solo Exhibition*, Western Painting MOON Shin, Renaissance Coffee House, Busan, Korea
3rd Solo Exhibition, Western Painting MOON Shin, Daegu, Korea
3rd Solo Exhibition, Western Painting of MOON Shin, Venus Coffee House, Changwon, Korea
- 1949 *2nd Moon Shin Western Style Painting Solo Exhibition*, Donghwa Gallery, Seoul, Korea
- 1948 *1st Moon Shin Western Style Painting Solo Exhibition*, Donghwa Gallery, Seoul, Korea

Group Exhibitions

- 2019-18 *40 Years With MOON Shin and CHOI Sungsook: Art and Daily Life*,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 2018 *Ode to Youth, GIAF Special Exhibition: Korean Art Masterpiece - MOON Shin, JEON Hyucklim*, CECO, Changwon, Korea

- 2016 *Modern Art Association: Blooming the Avant-garde!*,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 2012-11 *MOON Shin and Lee Ungno's Beautiful Companionship*, Lee Ungno Museum, Daejun, Korea
- 2011 *MOON Shin and Lee Ungno's Beautiful Companionship*,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Korea
- 2006 *Gallery Yeh 28th Anniversary*, Gallery Yeh, Seoul, Korea
- 2005 *Soul of Korea*, 3rd Valencia Biennale, Valencia, Spain
- 2006-04 *A Reflection of Korea*,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New York, USA
- 2004 *Steel of Steel: Story of Stainless Steel Sculpture*, Posco Art Museum, Seoul, Korea
- 2000 *The Beginning of Korean Contemporary Ar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Millennium Festival Gwanghwamun 2000: Sculpture Car Parade, Gwanghwamun Saejongro, Seoul, Korea
Hong Kong-USA World Jewelry Exhibition, Hong Kong
- 1997 *Three Korean Artists*, Carrousel du Louvre, Paris, France
- 1992 *Exposition Rétrospective Itinérante, The Three Great Worldwide Sculptors Exhibition*, Hôtel de Ville de Paris-Salle St. Jean, Paris, France
Salon de Mars, Paris, France
Salon de Mai, Paris, France
Salon Grands et Jeunes d'Aujourd'hui(Today's Master and Young People), Grand Palais, Paris, France
Salon des Réalités Nouvelles(Neo-realism), Paris, France
- 1991 *Salon Grands et Jeunes d'Aujourd'hui*, Grand Palais, Paris, France
Salon des Réalité Nouvelles, Vincennes, France
- 1991-89 *Seoul Art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 1990 Tokyo Art EXPO, Tokyo, Japan
Tableaux Modernes Art Contemporain, Paris, France
Salon des Réalités Nouvelles(News Realities), Paris, France
- 1989 *Revolution: Flash-back: 200th Anniversary of the French Revolution With 24 Artists*, Paris Art Center, Paris, France
89 Korean Sculpture Exhibition, World Trade Center Seoul, Seoul, Korea
- 1988 *Seoul Olympics International Sculpture*, Olympic Park, Seoul, Korea
Sculpture of MOON Shin and Cardenas, Hanguk Gallery, Seoul, Korea
- 1987 *87 Contemporary Ar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 1986 *Yesterday and Today of Korean Contemporary Ar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 1985 *85 Modern and Contemporary Artists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 1979 *Formes et Vie*, Galerie D'Art de l'Aéroport d'Orly-Sud, Paris, France
Salons de la Sculpture Contemporaine, Fontenay-sous-Bois, France
Internationale de Sculpture, Vaudreuil, France
Sensibilités Plastiques d'Aujourd'hui, Paris, France
Salon Grands et Jeunes d'Aujourd'hui(Today's Young People), Grand Palais, Paris, France
Salon de Mai, La Défense, Paris, France
Group Exhibition, Atelier Maitre Albert, Paris, France
- 1978 *Salon Comparison*, Grand Palais, Paris, France
Formes et Vie, Paris, France
Salon de Mai, La Défense, Paris, France
Salon de Sculptures, Municipal Office, Fontenay-sous-Bois, France
Salon D'art Sacré: Expression Spirituelle, Musée du Luxembourg, Paris, France
Salon Grands et Jeunes d'Aujourd'hui, Grand Palais, Paris, France
Sculptures Modernes, Centre de Sculptures Contemporaines, Paris, France
Tour Art Vivant, Municipal Office, Tours, France
Tour Multiple 78, Tours, France
Group Exhibition, Atelier Maitre Albert, Paris, France
- 1977 *Salon de Mars*, La Défense, Paris, France
Salon des Réalité Nouvelles, Vincennes, France
Grands et Jeunes d'Aujourd'hui, Grand Palais, Paris, France
Festival des Arts Contemporaine, Sculptures Modernes, Centre de Sculptures Contemporaines, Paris, France
Salon de Sculptures, Point-Denis Sur Bois, France
Festival D'Art, Hôtel de Ville, Paris, France
- 1976 *Salon de Mai*, La Défense, Paris, France
Salon de Comparaisons, Grand Palais, Paris, France
Formes et Vie, Galerie Strophore, Paris, France
Exposition de la Peinture Contemporaine, Khaneh Affab Galerie, Tehran, Iran
Exposition de Sculpture Moderne, Paris, France
Grands et Jeunes d'Aujourd'hui, Grand Palais, Paris, France
- 1975 *Salon de Mai*, City of Paris Museum of Modern Art, Paris, France
Grands et Jeunes d'Aujourd'hui, Grand Palais, Paris, France
PARIS-SCULPT: Petite Sculptures 1975, Paris Sculpture Center, Paris, France
Exposition Internationale de la Sculpture de Plein Air, Milano, Italy

- 1974 *Salon de la Jeune Sculpture*, Élysée Palace, Paris, France
Salon de Comparaisons, Grand Palais, Paris, France
Grands et Jeunes d'Aujourd'hui, Grand Palais, Paris, France
Salon de Mai, Grand Palais, Paris, France
Formes et Vie : Recherches pour une Esthétique et une Animation Urbaines, Marcq-en-Baroeul, France
Festival de Corée, Paris, France
- 1973 *Salon de Mars*, Metro Saint-Augustin, Paris, France
Recontres Internationale d'Art Contemporain, Saint-Germain-En-Laye, Île-de-France, France
Salon de Mai, City of Paris Museum of Modern Art, Paris, France
Grands et Jeunes d'Aujourd'hui, Grand Palais, Paris, France
Formes et Vie, Paris, France
Formes pour un Espace, Saint-Germain-En-Laye, Île-de-France, France
The Role of Trees in Sculpture, Grand Palais, Paris, France
Wood Sculpture with 7 Artists, Paris Sculpture Center, Paris, France
Group Exhibition of Élysée Palace Modern Art Festival, Paris, France
- 1972 *Grands et Jeunes d'Aujourd'hui*, Grand Palais, Paris, France
Salon de Mars, Sculpture Dans Le Métro Saint-Augustine, Paris, France
Salon de Mai, City of Paris Museum of Modern Art, Paris, France
Le Mesnil Saint Denis, Saint Denis, France
Inaugural Exhibition of Nouvel Craven Gallery, Paris, France
- 1971 *Inaugural Exhibition of Arts/Contacts*, Paris, France
Art Basel, Basel, Switzerland
Salon D'art Sacrés, Paris, France
Sculpture Moderne, Perpignan, France
Vivre en couleurs, Paris, France
- 1970 *Symposium international de la sculpture*, Musée des Sables, Port Barcarès, France
Festival Arts Plastiques, Montargis, France
Sculpture Moderne, Saint Geneviève, France
Formes et Sculptures, Galerie von der Höh, Hamburg, Germany
Arts et Matières, Troyes, France
- 1959 *5th Modern Art Association Exhibition*, National Library of Korea Gallery, Seoul, Korea
4th Modern Art Association Exhibition, Donghwa Gallery, Seoul, Korea
- 1958 *3rd Modern Art Association Exhibition*, Hwashin Gallery, Seoul, Korea
1957 *2nd Modern Art Association Exhibition*, Hwashin Gallery, Seoul, Korea
1947 *Joseon Art Alliance Exhibition*, Donghwa Gallery, Seoul, Korea

Awards

- 1995 Order of Cultural Merit, Posthumous Honors
1994 Ordre des Arts et des Lettres, Legion d'Honneur Officer
1992 Ordre des Arts et des Lettres, Legion d'Honneur Chevalier
1984 Gyeongsangnam-Do Cultural Prize

Collections

City of Paris Museum of Modern Art, Paris, France
Budapesti Történeti Museum, Budapest, Hungar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Changwon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Pohang Museum of Steel Art, Pohang, Kore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oonshin Museum, Seoul, Korea
SOMA Museum, Seoul, Korea
ARARIO MUSEUM, Seoul, Korea

GWON Osang

Born in 1974,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Education

2004 MFA Dept. of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2000 BFA Dept. of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23 *Seoul's Glittering*, B the B Communication Lounge, DDP, Seoul, Korea
AIR MASS : a path of wind, Lotte Gallery, AVENUE ART HALL, Seoul, Korea
- 2022 *The Other Self*, Ilmin Museum of Art, Seoul, Korea
Still Life, EVERYDAY MOONDAY Gallery, Seoul, Korea
OUR SET: OUR LABOUR X GWON OSANG, Art Space Gwanggyo, Suwon Museum of Art, Suwon, Korea
- 2021 *Sequence*, TYPE, Seoul, Korea
- 2016 *Relief Relief*, Willing N Dealing, Seoul, Korea
The Sculpture, ARARIO GALLERY, Shanghai, China
The Art of the Image New Sculpture, Hermes, Sydney, Australia
Recontemporary, Waterfall Gallery, New York, USA
New Structure and Relief, ARARIO GALLERY, Seoul, Korea
- 2015 *The Pivots*, ARARIO MUSEUM TAPDONG CINEMA, Jeju, Korea
New Structure, Okinawa Contemporary Art Center, Okinawa, Japan
New Structure, Baik Art, Los Angeles, USA
- 2014 *Structure*, Perigee Gallery, Seoul, Korea
Osang Gwon, JOYCE PARIS, Paris, France
Osang Gwon: The Deodorant Type, Statoil Art Programme, Statoil, Bærum, Norway
- 2013 *Osang Gwon*, Temenggong Artists-In-Residence, Singapore, Singapore
Postmodern Times, HADA Contemporary, London, UK
Masspatterns, 13 S/S Collaboration Exhibitions #03, MANMADE WOYOUNGMI, Seoul, Korea
- 2012 *Osang Gwon*, ARARIO GALLERY, Seoul, Korea
- 2011 *Adore*, Aando Fine Arts, Berlin, Germany
Sculpture, Doosan Gallery, Seoul, Korea
- 2010 *Torso*, Gallery 2, Seoul, Korea
Deodorant Type, Doosan Gallery, New York, USA
- 2009 *Deodorant Type*, ARARIO GALLERY, New York, USA
- 2008 *Deodorant Type: Sculpture by Osang Gwon*, Manchester Art Gallery, Manchester, UK
- 2007 *Osang Gwon*, ARARIO GALLERY, Beijing, China
- 2006 *Gwon, Osang*, Union II, London, UK
The Sculpture, ARARIO GALLERY, Cheonan, Korea
- 2005 *Deodorant Type & The Flat*, Andrew Shire Gallery & 4-F Gallery, Los Angeles, USA
- 2001 *Deodorant Type*, Insa Art Space, The Korea Culture & Arts Foundation,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4 *Carving in, Modeling out*, ARARIO GALLERY, Seoul, Korea
UNBOXING PROJECT 3: Maquette, New Spring Project, Seoul, Korea
- 2023 *Ordinary People, Splendid History*,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Korea
Borderless, Ananti Culture Club, Busan, Korea
Romantic Irony, ARARIO GALLERY, Seoul, Korea
- 2022 *Metal Fluid*, Park Tae Joon Memorial Hall, Busan, Korea
Kim Bokjin and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Sculptors, Cheongju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Art & Industry, Ulsan Art Museum, Ulsan, Korea
Hallyu! The Korean Wave, V&A South Kensington, London, UK
HiKR Art Museum Inaugural Exhibition, HiKR Ground, Seoul, Korea
Kak, Hite Collection, Seoul, Korea

- Children's Day 100th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Hello Museum, Seoul, Korea
Another Asian Artist, THE SHOPHOUSE, Tai Hang, Hong Kong
The Glitter Path, Art Space Hohwa, Seoul, Korea
New Acquisitions, Pohang Museum of Steel Art, Pohang, Korea
2021 *Art Token: KARTZ Art Shapes the Future*, Nodeul Island, Seoul, Korea
Arcane, Scene, Seoul, Korea
The Premiere, Cheongdam A Lounge, Seoul, Korea
Texture House, P.ARK, Busan, Korea
The Chronical of Lost Tim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0 *YES/NO/LIKE/DISLIKE/LOVE/HATE/REPLY/SHARE*, Art Delight, Seoul, Korea
The Guide to the Earth Life, Koo House Museum, Gyeonggi-do, Korea
NO SAPCE JUST A PLACE : ETEROTOPIA, Daelim Museum, Seoul, Korea
Remix, Pohang Museum of Steel Art, Pohang, Korea
2019 *Furniture*, ARARIO MUSEUM in Space, Seoul, Korea
To the Moon with Snoopy, Lotte Museum, Seoul, Korea
MOKA Triangle, Hyundai Museum of Kid's Books & Art, Pangyo, Korea
The Third Image, Kim Chong Yung Museum, Seoul, Korea
2018 *Endless Column*, ARARIO GALLERY Ryse Hotel, Seoul, Korea
Post 88',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5 *Tech 4 Change*, Vestfossen Kunstlaboratorium, Vestfossen, Norway
Uproarious, Heated, Inundated,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2014 *Pillars*, ARARIO GALLERY, Seoul, Korea
Tomorrow 2014 Part 2: Culture Print, DDP, Seoul, Korea
Medium at Large, Singapore Art Museum, Singapore
K -Pop: Korean Contemporary Art, Taipei Museum of Contemporary Art, Taipei, Taiwan
2011 *ARTISTS with ARARIO Part 1*, ARARIO GALLERY, Seoul, Korea
The Korean Miracle: A Cultural Evolution, Asia House, London, UK
Embracing the void, HADA Contemporary, London, UK
2010 *Memories of Future*, Leeum Museum of Art, Seoul, Korea
Korean Eye: Fantastic Ordinary, Saatchi Gallery, London; The Arts House, Singapore, Singapore; The Seoul Museum of Art, Gyeonghuigung, Seoul; The Korea Foundation Cultural Centre, Seoul
Roundabout°Conversations in art from around the globe, City Gallery Wellington, Wellington, NZ
Man Ray's Photography & His Heritage, Seoul Museum of Art, Seoul
New York Photo Festival 2010, Smack Mellon, New York, USA
A POSITIVE VIEW, Somerset House, London, UK
ARTISTS with ARARIO, ARARIO GALLERY, Seoul/Cheonan, Korea
2009 *Manipulating Reality*, The Center for Contemporary Culture Strozzi, Florence, France
2008 *Youth Portraits*, Avanthay Contemporary, Zurich, Switzerland
Peppermint Candy: Contemporary Art from Korea,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Buenos Aires, Argentina

Collaborations

- 2022 *Physical Performance <Play for a while>*_Motivated by "The Cloud Dream of the Nine",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The Prequel by Mint:ist'Club, Platform-L, Seoul, Korea
2021 *Riot Games*, Seoul, Korea
2020 *Hermès Window Display 2020: New Structure of Sculpture - A Trip to Another Joyful Place*, Hermès, Shinsegae Department Store Daegu
2019 *Art Bookshop*,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2018 *BMW*, Seoul, Korea
2013 *Masspatterns, 13 S/S Collaboration Exhibition #03*, MANMADE WOYOUNGMI, Seoul, Korea
2011 *Fashion into Art*, Vogue Korea, PLATEAU, Seoul, Korea
2009 *W Korea*, Seoul, Korea
Hoodie on Moment, Nike Sportswear, Gallery Hyundai Gangnam Space, Seoul, Korea
2008 *Harper's Bazaar*, Boon the Shop, Seoul, Korea
Perfect Symmetry, Keane, Island Records
NIKE SU08 DUNK "Be True", Seoul, Korea

2006 Fendi, Gallery IHN, Seoul, Korea
2002 OPAQUE, Ginza, Tokyo, Japan

Awards

2012 Kim Se Choong Sculpture Prize
2001 Photograph Critique Awards

Residencies

2013 Temenggong Artists-In-Residence, Singapore
2010 DOOSAN Residency, New York, Korea
2005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Seoul, Korea
2003 Youngeun Artist-in-Residence, Gwangju, Korea

Selected Collections

Zabludowicz Collection, UK
Universal Music Group, USA
Burger Collection, Germany
David Roberts Art Foundation, UK
Roundabout Collection, USA
Hermes Collection, Australia
Singapore Art Museum, Singapor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Leeum, Sanmsung Museum of Art, Korea
Seoul Museum of Art, Korea
Busan Museum of Art, Korea
Pohang Museum of Art, Korea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Korea
Daegu Art Museum, Korea
Suwon Museum of Art, Korea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Art Sonje Center, Korea
Asano Institute, Japan
Embassy of Switzerland, Korea
Samsung Fine Chemical, Korea
Hana Bank, Korea
Lotte Museum, Korea
YG Entertainment, Korea
ARARIO MUSEUM, Korea
Doosan Collection, Korea
Statoil ASA, Norway
Ole Faarup Collection, Denmark
RC Nursery Private Limited, India